

당진 일대의 포유류

오대현·이근호

(참생태 연구소)

요약

당진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4~11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7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 급은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1. 서론

당진(도엽번호: 366032)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 조사는 장경희·전주영(2014)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당진(도엽번호: 366032)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모든 격자에 대하여 1 회씩 실시하였다(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E1	2019. 7. 29
E2	2019. 7. 30
E3	2019. 7. 30
E4	2019. 7. 31
E5	2019. 6. 17
E6	2019. 8. 1
E7	2019. 11. 5
E8	2019. 11. 6
E9	2019. 8. 2



그림 1. 당진 일대의 도엽

3. 결 과

3-1. 전체 포유류 현황

당진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7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3 종, E2 가 4 종, E3 이 4 종, E4 가 3 종, E5 가 4 종, E6 이 4 종, E7 이 6 종, E8 이 3 종, E9 가 3 종이었다.

표 2. 당진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	○	-	○	○	○	○	○
고양이	-	○	○	-	○	-	○	-	-
너구리	○	-	-	-	-	○	○	-	-
오소리	-	-	-	○	-	-	-	-	-
고라니	○	○	○	○	○	○	○	○	○
청설모	-	○	○	○	○	○	○	○	○
등줄쥐	-	-	-	-	-	-	○	-	-
합계(총 7 종)	3 종	4 종	4 종	3 종	4 종	4 종	6 종	3 종	3 종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당진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6 종, 경작지에서 4 종, 그리고 시가화에서 1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당진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	-	-	-
고양이	-	-	-	○	-
너구리	○	○	-	-	-
오소리	○	-	-	-	-
고라니	○	○	-	-	-
청설모	○	○	-	-	-
등줄쥐	○	-	-	-	-
합계(총 7 종)	6 종	4 종	0 종	1 종	0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4. 당진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두더지	8				8				
	너구리	1								1
	오소리	2						2		
	고라니	16	5	4	1			6		
	청설모	13						4		9
	등줄쥐	1							1	
경작지(논, 밭, 과수원)	두더지	9				9				
	너구리	5	2	3						
	고라니	13	1	12						
	청설모	2								2
시가화	고양이	6						6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당진 도엽의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고 찰

당진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 된 포유류는 총 7 종이었다.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3 종(오소리, 고라니, 청설모)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본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서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본 도엽은 대부분이 낮은 야산과 넓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격자 1, 2, 3 은 대부분이 간척농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포유류의 분포가 아주 적은 곳이었다. 또한 격자 7 번은 당진시가 지 그리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서식지 소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야산 및 대규모 평야 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사이를 국도, 도로, 임도가 발달되어 있어 서식지 파편화의 진행이 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포유류의 높은 종다양성과 풍부한 개체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 종합 및 제언

서식지로서 고도가 낮은 지역은 인간의 간섭, 특히 도로, 주거지, 산업 개발이 용이 함으로 서식지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 조사지역은 당진시를 중심으로 북쪽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농지, 야산, 주거지 그리고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서식지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야산에는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도 잘 발달되어 있어 등산객의 출입이 빈번하여 이 또한 포유류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19.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 환경부, 세종
장경희·전주영. 2014.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당진일대의 포유류). 국립생태원, 서천

[부록 1] 사진대지

	
<p>사진 1. 산림지역 조사지 전경</p>	<p>사진 2. 당진시 신도시 건설 현장</p>
	
<p>사진 3. 경작지(논) 조사지 전경</p>	<p>사진 4. 조사지 내 대형 공장</p>
	
<p>사진 5. 청설모 식흔</p>	<p>사진 6. 너구리 사체</p>

